

# “아름다운 파산이나 제 뭉텅겨 떠나느냐”

광주 출신 김솔 작가 '마카로니...'  
다국적기업 구조조정 소재  
GM 사태와 맞물려 관심  
물질만능 속 인간 가치 조명



“공장이 폐쇄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해고되었다. 해고는 학살이라는 주장은 무시되었다. 현행 법률에 의거한 퇴직금이 지불되었을 때 수령을 거부한 직원

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근에 장편 소설 '마카로니 프로젝트' (문학동네·사진)를 펴낸 광주 출신 작가 김솔(46)은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 문장은 전체 소설을 관통하는 압축적인 내용이나 다름없다.

201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이번 장편에서 다국적 기업의 공장 폐쇄를 소재로 사람들의 선택과 갈등을 정치하게 그려낸다. 무엇보다 작금의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향토 기업인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등을 둘러싼 국면과 맞물려 소설은 허구에 앞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 같은 느낌을 준다.

“어느 단체나 이해하지 못할 조직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임원은 임원의 논리, 팀장은 팀장의 논리, 팀원은 팀원의 논리가 있지요. 그러나 구조조정이 단행됐을 때 저마다에게 미치는 고통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불행은 점차 확산된다는 것이죠.”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김 작가는 공교롭



최근 다국적 기업 구조조정을 소재로 장편소설을 펴낸 광주 출신 김솔 작가. <김솔 제공>

게도 작금의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도 굴삭기 제조와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설은 지난 2015년 문예지에 발표했던 것은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거나 집기를 약탈하는 무력시위를 보인다. 직원들과 퇴직금에 대한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인사팀장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고 퇴사하는 쪽이 낫다는 쪽과 공장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쪽의 갈등도 점차 높아진다. 작가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인물들을 몰아넣는다. 즉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선의 삶’을 도모할 때 어느 쪽이 절대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우선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작가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략 4년 정도 벨기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그곳의 회사 경험과 다국적 친구들과 교류를 통해 소설의 모티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의 희망을 좇아 함께 아름다운 파산을 선택하는 게 인간적인 것일까, 아니면 파산 전에 제 뭉텅겨 떠나게 더 인간적인 것일까.”

작가는 인물을 창조한다는 명제에 맞게, 소설 속 캐릭터는 다양하다. “인간은 쉽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비로소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는 순간 내 주변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소설은 공장 폐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 동요로 갈등이 심화된다. 어떤 직원들은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거나 집기를 약탈하는 무력시위를 보인다. 직원들과 퇴직금에 대한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인사팀장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고 퇴사하는 쪽이 낫다는 쪽과 공장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쪽의 갈등도 점차 높아진다. 작가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인물들을 몰아넣는다. 즉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선의 삶’을 도모할 때 어느 쪽이 절대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우선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동의 희망을 좇아 함께 아름다운 파산을 선택하는 게 인간적인 것일까, 아니면 파산 전에 제 뭉텅겨 떠나게 더 인간적인 것일까.”

작가는 인물을 창조한다는 명제에 맞게, 소설 속 캐릭터는 다양하다. “인간은 쉽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비로소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렇듯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몰린 인간의 여러 모습을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작가는 언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까. 그는 대학(고려대)에서 기계 공학을 전공하고 2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혼자 습작을 했던 탓에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신춘문에 등단작에 대해 “발상도 좋고 이야기기를 이끌어 가는 힘이 좋다”는 평이 이를 방증한다.

“고등학교(광덕고) 때까지 광주에서 살다 대학에 들어온 이후 많이 외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주는 문화적 충격이 컸지요. 이를 견디기 위해 여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혼자 습작을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설 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문단 내 아는 선배배 작가도 아니었어요.”

김 작가는 등단 이후 소설집 ‘암스테르담 가라지 세일 두 번째’, ‘망상, 어둠’과 장편 ‘너도밤나무 바이올리’, ‘보편적 정신’을 펴냈다. 일련의 문학을 공부하는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설 쓰기를 익혔고, 그것의 결실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도 몇 차례 고향에 온다”는 그는 항상 광주가 그리다고 했다. “학창 시절 시내에 나간다고 하면 으레 금남로와 충장로를 찾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광주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금남로를 걷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예전의 정취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워요.”

김 작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소설을 쓸 것이다. 한국의 색채를 지우고, 이웃이나 가족의 색채도 지우고, 대신에 외국의 분위기를 덧입혀 새로운 작품의 소설을 쓸 예정이다. 작장과 창작을 병행하는 그의 고투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바로크 명화 속 클래식 산책

올 첫 '청소년 음악회'  
22일 광주문예회관

◀렘브란트 자화상

지난해 인기를 끈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가 올해 첫 출발을 알린다. 첫 공연의 주제는 '아르츠콘서트 - 바흐, 레브르트를 만나다'이다. 22일 오후 6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은 바로크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바흐와 헨델, 미술가 렘브란트와 루벤스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본 예술의 초점은 과연 무엇을 겨냥했는지 알아보는 액션 콘서트로 꾸며진다.

바로크시대 예술가들의 예술관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과 시선, 그들의 작품이 혼란스러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17세기 오페라가 번성했던 이유, 헨델 '리날도'의 숨겨진 이야기 등 바로크 시대 오페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유럽의 다양한 장소들과 엮어 전달한다.

영국 현지 도슨트로 활동 중인 콘서트마스터 윤상인의 해설과 함께 성악

가 강내우(세기티니, 에르폴라노 1위), 바이올린 성경준(강원대학교 교수), 비올라 이신규(멘델스존 펠로우십 우승), 첼로 이현민(fairfax Symphony in New York 콩쿠르 우승), 피아노 최승리(아스펜 국제음악제 공식 반주자 역임)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들을 연주한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3번 '프렐류드', '골든 베르크 변주곡' 모음을 비롯해 헨델의 '파사칼리아', 오페라 '세르세' 등이 소개된다.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의 다음 공연은 '해피버스타이, 피아졸라'(4월 19일)다. 이어 '클래식 큐레이터, 라스트 모차르트'(6월 21일), '소프라노 흥해란의 디바 인 뉴욕'(7월 19일), '전체 문학가, 에니메이션 거장을 만나다'(9월 20일), '오페라가 들리는 이탈리아 여행'(10월 18일), '해피버스타이, 슈만'(11월 22일) 등이 준비됐다.

전석 2만원, 학생 무료. 문의 062-613-8235.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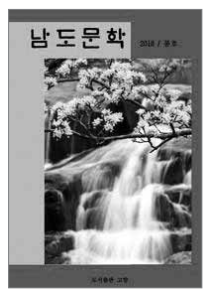
## 특집 '죽음과 문학'...남도문학 봄호 발간

문학을 통한 인간성 회복, 품격 높은 작품, 치열한 작가 정신을 모토로 하는 계간 '남도문학'(사진)의 2018 봄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죽음과 문학'을 다뤘다.

공무원 출신 자유기자가 박종수 씨가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권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고인과 이별하기 위해서는 고인에게 주었던 사랑의 에너지를 쏟을 다른 대상이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특집으로 '시수필, 이론과 실제'를 조명했다. 김덕일 씨는 '안성수의 수필 오디세이 I·II'를 토대로 수필사학론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이밖에 '정형택의 시로 보는 세상', 노창수 시인의 '탄피와 탕자', 윤이현 시인의 '산수유꽃'을 소개한다. 또한 김성백 수필가의 '내 인생의 또 다른 여정(旅程) 속으로', 이홍규 시인의 전라도 사투리시 '짹' 등 풍성한 작품도 실려 있다. 김덕일 시인은 발간사에서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 없으니 다양한 작업을 하고, 그걸 즐기고, 보전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일 게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 '어린이도서연구회 광주지부' 회원 모집

어린이 책 문화 운동을 실천하는 '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에서 신입회원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라는 취지로 1980년 설립됐다. 광주지부는 1998년 모임이 꾸러졌으며, 바람직한 도서문화와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2월 '책놀이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함께 책 읽기, 독서 강좌, 어린이 문화 체험뿐 아니라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권장하는

도서문화운동을 전개한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신입회원 대상 교육은 광주시내 도서관 및 공공시설에서 실시되며 '마음을 살찌우는 책읽기', '우리나라 창작동화', '옛 이야기' 등을 주제로 관산, 북부,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어린이 책과 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비는 2만원. 문의 062-266-7279, 010-7202-950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계 여성 잔혹사 내일 광주여성의전화 토론회

(사)광주여성의전화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폭력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기억하고 고통에 참여 및 연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여성의전화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국가폭력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젠더 이슈 토크를 진행한다.

아시아광주여성네트워크(준), (사)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민족 등 다양한

갈등의 이면에 '여성의 몸'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 어떻게 분쟁의 도구로 악용돼 왔는지를 이야기한다.

사례발표는 '성폭력과 종교 분쟁, 그리고 군부'(Naw Demona Khoo, 미얀마), '일상이 된 성폭력과 아프리카 여성들'(Stephie Melina Kabre, 부르키나파소), '분쟁지에서 폭력에 소비되는 여성의 몸'(조영희, 前 평화여성회 대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질의응답과 전체토론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문의 062-363-7739, 010-4078-1192. /전문기자 ej6621@

천만홀릭  
케빙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